우리 복지관은 지금 15. 하계종합사회복지관

환경 배우고 실천하는 '지구상상소'



ESG 환경 창의 프로젝트 '지구상상소'에 참여한 아이들이 비누 점토를 활용해 지구 모양을 만들고 있는 모습.

최근 쓰레기와 플라스틱 등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이들이 환경 문제를 직접 체험하고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할 기회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이 늘며 방과 후 돌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또래와 함께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아동 등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하계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7월부터 돌봄과 환경 교육을 결합한 ESG 환경 창의 프로젝트 '지구상상소'를 운영해오고 있다.

지구상상소는 2024년 운영한 창의적 재사용 실험실 '가지가지' 프로그램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이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돌봄 강화 프로그램 일환이다.

지구상상소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미술 활동과 과학 실험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이해와 창의력을 높이고, 스마트폰을 대신할 건강하고 의미 있는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자 했다.

또한 환경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배운 환경의 가치를 주변에 알리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표다.

주요 프로그램은 환경 교육과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미술 활동 '지구 아트', 과학과 놀이를 접목한 '지구 실험실', 환경 캠페인, 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지구상상 전시회: 그린나래'를 열어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작품과 활동 결과물을 보호자와 지역 주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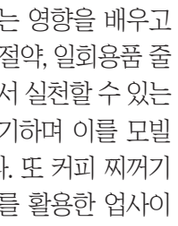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탄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배우고 분리 배출과 자원 절약, 일회용품 줄이기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하며 이를 모빌 작품으로 만들었다. 또 커피 찌꺼기로 비누와 폐종이를 활용한 업사이클 바인딩북을 제작하는 등 버려지는 자원이 새로운 물건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몸소 경험했다.

아이들은 이 같은 재활용품을 활용한 창의 활동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물 아끼기, 재활용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등 생활 속 환경 보호 방법을 스스로 제안했다.

복지관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 습관을 지속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지구상상소'를 단발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장기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하계종합사회복지관은 '지구상상소'를 통해 아이들이 환경 문제를 자신의 생활과 연결해 이해하고, 분리배출과 자원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아이들이 친구들과 협력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건강한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세진
하계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남산에서 묻는 마음의 안부 ⑦ 마음에도 여름휴가가 필요하다

그림책 명상으로 만난 마음공부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이면 누구나 휴가를 떠올린다. 그런데 이번 여름 한 달을 보내며 조금 다른 휴가를 생각하게 됐다. 몸이 머무는 장소를 바꾸는 것만큼,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림책 명상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을 안내한다. 그림책 한 권을 천천히 읽고 한 장면 앞에서 오래 머물며 호흡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시간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안내한다고 해서 명상 안내자의 마음까지 늘 평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는지 더 자주 발견하게 됐다. 명상을 안내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결과를 향해 서두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한 달의 마음공부가 시작됐다.

그림책을 펼쳐 놓고 천천히 그림을 바라봤다. 평소라면 지나쳤을 작은 표정과 여백, 페이지 사이의 침묵이 눈에 들어왔다.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림책이 때로는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조용한 자리를 내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다. 명상도 다르지 않았다.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애쓸수록 생각은 더 많아졌고, 좋은 마음만 가져야 한다고 할수록 불편한 감정은 더 또렷해졌다. 그러나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고 바라보기 시작하자 마음과 조금씩 거리가 생겼다.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감정을 빨리 바꾸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저 지금의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에는 작은 공간이 생겼다.

한 장면 앞서 자기 마음 바라보게 안내
상대에 귀 기울이고 바라보는 여유 생겨
감정 붙들리지 않고 돌아오는 힘도 길러

함께 명상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선생님들에게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났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해결책부터 제시하기보다 잠시 들어주는 시간이 늘어났고, 서로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 "많이 애썼구나"라고 바라보는 여유가 생겼다. 거창한 변화는 아니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멈추는 것, 상대의 말을 조금 더 오래 듣는 것, 불편한 감정을 곧바로 밀어내지 않는 것. 하루 중 잠시라도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 어쩌면 마음공부는 이런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그림책 명상을 하면서 점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마음을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도, 언제나 평온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 슬플 때는 슬픔을, 화가 날 때는 분노를, 지쳤을 때는 지친 자신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감정에 오래 붙들려 있기보다 다시 지금의 자리로 돌아올 힘을 기르는 것이었다.

그림책은 그 과정에서 좋은 벗이 되어주었다. 짧은 문장과 한 장의 그림 앞에서는 설명보다 느낌이 먼저 찾아왔다. 같은 그림책을 보아도 마음에 닿는 장면은 사람마다 달랐다. 그래서 그림책을 읽는 시간은 어느 순간 책을 읽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읽는 시간이 됐다.

이번 한 달의 여름은 휴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매일 반복되는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도 휴가였고, 타인의 기대와 역할에서 잠시 내려와 자신의 마음을 만나는 것도 휴가였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며 명상 안내자들과 함께 누군가를 치유하기에 앞서 먼저 자기 마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었다.



덕운 스님
서울 충정사 주지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㉘ 어떤 '음모론'



영원사 유리보전.

온갖 종류의 '음모론'이 횡행하는 세상이다. 원래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을뿐더러 솔깃해할 나이도 아니지만, 하마터면 음모론에 빠질—아니, 내가 퍼트릴—뻔했다. 뭐냐 하면, '몬드리안은 한국 사찰에서 자신의 구성주의 작품 세계의 영감을 얻었을 것이다'는 생각 혹은 발견. 제법 그럴듯해서 찾아보니, 1872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파리를 오가며 활동하다 1944년 뉴욕에서 사망한 그가 한국에 와 봤을 가능성은 제로. 그 시대의 한국은 숨어 있는 나라였다. 즉시 음모론을 (흔쾌히 자발적으로) 철회했다. 미수에 그쳐서 정말 다행이다.

내 음모론의 전말은 이렇다. 영원사 유리보전 출입구 쪽 벽면을 보는 순간 '몬드리안'이 떠올랐다. 수직선과 수평선 그리고 삼원색만으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추상을 추구한 몬드리안의 구성주의 회화가 거기 있었다. 보편 원리의 측면에서 전통과 현대는 만날 수밖에 없다. 영원사 유리보전의 벽면 조형과 몬드리안의 회화는 서로 빚진 게 없다.

이천 영원사는 신라 때 창건된 고찰이지만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다가 1968년 비구니 선혜 스님이 중창했다. 유리보전은 1985년에 지은 건물이다.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기둥과 보, 꽃살문과 벽을 그리드 시스템으로 활용한 조형 감각이 참신하다. 절 마당의 조경도 매우 예쁜 절이다.

봄이면 사람들이 환호하며 모여드는 '이천 산수유마을'이 영원사 아랫마을이다.

손영자 작가

